

夏期 學生 啓蒙運動 實施 指針私見[제4회, 全6回]

黃郁

四. 한글은 어떻게 가르칠까

「한글」을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精神 이아든지 가르치는 態度는 우에 말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만을 簡單히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다싶이 예전에는 기옥 니은 「ㄱ」과 「가갸거겨」等 이른바 「반절」또는 「언억」을 널따란 조이에다 죽-써가지고 그것을 機械的으로 따로 외이고 따로 쓰고하야 그것을 全部 통달하도록 하고, 그 후에 바침도 또 「」 「각」 「간」 「갈」等과 같이 모조리 배워주는 것이 었습니다.

이것은 勿論 아주 原始的인 方法이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다가지 힘들고 그뿐 아니라 그처럼 機械的으로만 따로 외이고 쓰고 한 것은 얼마 지나지 못하야 죄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반절 全部를 이처럼 機械的으로 외이는 것이 힘만 들고 잊어버리기 쉽다 하야 새로 생긴 方法이 잇으니, 그것은 한 가지 한 가지씩 事物을 적은 것을 記憶해가는 동안에 自然히 「한글」全部를 깨닫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例컨대 「가마」, 「고기」, 「개」, 「까치」, 「소가가오」, 「말이오오」 이런 名詞와 短文을 배워나가는 동안에 「한글」全部를 통달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本來英語와 같이 字母音合한 後의 發音이 不規則한 文字라든가, 또는 일본말 처럼 字數와 發音數가 아주 적은文字에는 대단히 좋은 方法이고 또 그러치 않은 말이라도 時間의 餘裕만 잇다면 그다지 나쁜方法은 아닐 것이나, 그러나 「한글」과 같이 發音數와 字數가 宏壯히 豊富하고 그러면서도 發音이 正確히 規則的인 文字를 가르치는데는 이 方法은 너무 많은 時間과 努力을 虛費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時間넉넉한 普通學校에서도 이 方法만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以上の 두 가지 方法은 다 充分히 좋은 方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개 이 두 가지 方法을 兼해서 使用합니다.

卽 처음에는 在來의 方法대로 먼저 읽는 方法을 가르쳐 줍니다. 「ㄱ ㄱ ㄱ ㅋ…」 「ㄴ ㄴ ㄴ ㄷ…」에서 부터 「가가거겨…」 「가나다라…」等 全部의 읽는 법을 똑똑히 正確한 音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子音과 母音이 合하여 한글字가 되는 方法을 대강 알으켜 줍니다. 卽 縱으로 「ㄱ ㄱ ㄱ ㅋ…」를 쓰고 橫으로 「ㄴ ㄴ ㄴ ㄷ…」를 써놓고, 「ㄱ」와 「ㄱ」가 合하여 「가」가 되고 「ㅎ」와 「ㅣ」가 合하여 「히」가되는 經路를 다음과 같은 方眼紙모양에 依하여 가르칩니다.

	ㄱ	ㄲ	ㄴ	ㄷ	ㄱ	ㄲ	ㄷ	ㄴ	ㅇ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더	도	도	두	듀	드	디

(처음 四字는 音이 왼편, 母音이 右便이고 다음 五字는 子音이위, 母音이 아래고, 다음 한字는 子音이 왼편, 母音이 右便됨을 가르침)

이러케 읽는 法과 글字 合成法을 대강 가르치는 것은 빠르면 二三日 늦어도 六七日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기」 「가마」 「거미」等과 같이 語文의 實例를 가지고(될 수 있으면 實物을 준비해가지고)글자를 練習시키는데 그저 機械的으로 외이게 하지 말고, 가령 「고기」의 例를 들 때는 「고」字는 「가행」의 ㅏ 몇 채 글字요, 「기」字는 또 몇 채 글字라는 것을 알게 하여 規則的으로 記憶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이지만, 이 境遇에 實例되는 것은 되도록 배우는 사람들에게 親近한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케 가르칠 때는 方言의 弊害를 받지 않도록 語音矯正도 할 것이니, 가령 고기를 例로 할 때면, 「괴기」 「괴귀」等의 發音을 하지 않도록 注意시킨후 「고기」라고 고는 어떤字와 어떤字를 써야 될가 하는 것을 兒童과 相議하여써 나갑니다. 이러한 練習을 한 十餘日 豫산하고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單純한 名詞에서부터 내중에는 좀 기-ㄴ 文句까지쓰도록하며, 이따금 쉬운 「바침」잇는字도 引用하여 아이들에게 「바침」이라는 것이 있음을 暗示하며, 그 준비 敎授를 할 것입니다. 이러케 하여 「하」行에 이르기까지 續 練習을 시키는데 하로에 三四行, 四五行집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재질에 많아서는 한줄씩 해도 그만이나, 그러케 하면 練習에 不便함이 많으므로 「한글공부」에 區分한 그대로 하는 것이 便利할것입니다. 그리고 每日 그 前에 練習한것을 되풀이하여 練習시킵니다. 이것이 끝나면, 本格的으로 (준비 敎授는 이미 하였으니까)바침 것이 자미 잇으나 「바침法」을 배울때 쯤되면 그런興味도 점점 적어갑니다. 그므로 바침法이 끝날 때 쯤 하여서는

읽는 이야기 쓰는 이야기가 꼭 재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써 보는 것이 제일이므로 보통 학교교과서도 얻어서 利用하고 少年雜誌같은것도 얻어서 읽히고 읽어주고 하는 것이 대단히 必要합니다. 이 時期에 많이 읽고 많이 쓸수록 「한글」은 아이들의 머리에 굳게 굳게 뿌리박을 것이외다.